

이 점을 훌륭하게 정리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들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나 페루 같은 곳에 잡지기 옮겨 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 피울지 의문입니다. 30년 후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 활동하는 시장은 내가 하는 일에 아주 후한 보상을 내리는 환경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지요.”

결국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그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부자 나라는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임금은 이민 제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민 노동자들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자 나라의 일부 시민들, 따라서 자신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Thing 14 참조) 사람들마저 그들이 일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덕에 그만큼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나 근면성만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정치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04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 기술 혁명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통신 기술 혁명은 물리적 '거리'의 파괴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국경' 없는 세계가 출현하면서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기술 혁명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도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제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시장 자유화가 필요하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변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전자 통신 기술상의

발전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 후반의 전보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인터넷 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선택기를 비롯한 가전제품만큼 크지 않았다. 가전제품은 집안일에 들어는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 줌으로써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출을 촉진했고, 가사 노동자 같은 직업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망원경을 가꾸로 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옛것을 파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기업의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정부가 없는 사람이 없다

어떤 미국인 친구가 해 준 이야기이다. 1970년대에 자기가 학교에 다닐 때 쓰던 스페인어 교과서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가정부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예문이 있었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장이다. 그렇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정부도 가정부를 데리고 산다는 말인가? 가정부도 가정부를 데리고 살 수 있도록 가정부들이 순변을 정해 서로 상대의 가정부가 되어 주는 제도가 있다면 몰라도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그 교과서를 쓴 미국 사람이 왜 그런 예문을 생각해 내었는지는 짐작이 간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가정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라면 교사나 중소기업의 과정이 입주 가정부를 두고 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정도 사람이면 대부분 입주 가정부를 한둘은 데리고 산다.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노동자의 7~8퍼센트, 이집트에서는 노동자의 9퍼센트 정도가 가사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독일에서는 가사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0.7퍼센트, 미국에서는 0.6퍼센트,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0.3퍼센트, 노르웨이에서는 0.05퍼센트, 스웨덴에서는 0.005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¹ 비율로만 따지면 브라질은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미국의 12~13배에 이르고, 이집트는 스웨덴의 1800배 이상인 셈이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구나” 가정부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이집트를 방문한 스웨덴 사람들이 온 나라가 가정부로 뒤덮여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의 선진국들 역시 과거에는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오늘날의 개발도상국과 거의 비슷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1870년만 해도 유급으로 고용된 사람의 8퍼센트 정도가 가사 노동자였다. 또 독일도 1890년대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고는 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비율이 8퍼센트 내외였다. 반면 지주 계급의 힘이 강해 다른 나라보다 하인 문화가 오랫동안 남아 있던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1850년부터 1920년까지 해마다 어느 정도 증감이 있기는 하나 전체 노동자의 10~14퍼센트가 가사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추리 소설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가 1930년대 이전에 쓴 작품들을 보면, 문이 잠긴 서재에서 살해당한 언론 재벌은 말할 것도 없고, 돈에 쫓돌리는 중산층 노처녀마저 다만 한 명이라도 하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선진국에서 이렇듯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주된 이유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이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소득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도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말이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물건'보다 상대적으로 더 더 비싸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가사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이 극소수 부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되고 말았다 (Thing 9 참조).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가사 노동자의 임금이 저렴한 탓에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도 가정부를 돌 수 있는 것이다.

세탁기의 등장

'물건 가격'에 비해 '사람 가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싸졌다 해도 세탁기를 선두로 한 여러 가전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난 100여 년 사이에 부자 나라들에서 목격된 것처럼 가사 노동자의 비중이 그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이 가능했을까? 빨래, 청소를 하고 볼 때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이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쓰는 것 말고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들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탁기는 가사 노동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해 주었다. 데이터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나 1940년대 중반 미국 농촌전력화사업청(Rural Electrification Authority)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기세탁기와 전기다리미가 도입된 이후 17킬로그램에 달하는 빨래를 세탁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41분으로 줄어들어 거의 6분의 1로 단축되었고, 이를 다리미질하는 데 드는 시간도 4시간 30분에서 1시간 45분이 되어 5분의 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시설은 물을 길는 데 들이는 시간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²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물을 길기 위해 여자들이 매일 2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니, 수도가 절약해 준 시간은 엄청나다.) 진공청소기는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해야 했던 옛날에 비해 시간은 훨씬 적게 쓰이고 집안을 몇 배나 청결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했고, 가스(혹은 전기)레인지와 중앙 난방 시스템은 난방과 조리에 필요한 열감을 구하여 불을 피우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며 사용 후 청소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엄청나게 줄여 주었다. 그것만이 아니다. 과거 미국 농림부에 근무했던 루비노(R. M. Rubinow)는 1906년 『정치경제 저널(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앞으로 이 물건을 발명하는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은인'이 될 것이라 한 적이 있다. 그가 말한 물건은 바로 오늘날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식기세척기이다.

전기, 수도, 가스와 더불어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변모했고, 그로 인해 남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가전제품은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18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창 일할 나이인 35~44세의 백인 기혼 여성 중에서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불과 몇 퍼센트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거의 80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³ 가사 노동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여성의 고용 구조 역시 극적으로 달라졌다. 일례로 18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는 취업 여성의 절반 정도가 가정부나 웨이트리스였다. 하지만 당시 아직 외식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로 이들의 대부분은 가정부로 고용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⁴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가 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도 확실히 높아졌다. 그 결과 남아 선호 사상이 약해지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가 늘어났고, 이것이 다시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다. 더욱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주부로만 지내는 여성의 경우에도 가정 내에서 지위가 올라갔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남편 곁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위협이 실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자녀 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모든 것이 전통적인 가족 내의 역할관계를 바꾸었다.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단지 가사 관련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피임약을 비롯한 피임술의 발달로 출산 시기와 빈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도 여성들이 교육과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기술 외적인 요인도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여성들은 늘 일해 왔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중산층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사회 편승성 용인되는지에 따라 기술력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나 고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금 제도가 임금 노동과 자녀 양육 중 어떤 것에 더 유리한지, 또 탁아 시설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친

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실을 감안해도 세탁기와 더불어 가사 노동을 줄이는 여타의 설비와 가전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회나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금처럼 극적인 정도로 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인터넷, 세탁기에게 지다

세탁기가 가져온 이런 변화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인터넷이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변화들을 비교해 보자. 물론 인터넷이 우리가 여가를 보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웹서핑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과 채팅을 하며, 스카이프를 나눈고, 5000마일이나 떨어진 누군가와 전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인터넷 덕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험, 휴가, 음식점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채소나 삼푸 가격까지 찾아보는 것도 무척 쉬워졌다.

하지만 인터넷이 생산 분야에서도 그렇게 혁명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이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일린 그레이블(Ilene Grabel) 교수와 공동 집필을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책 한 권을 다 쓰는 동안 한 번 직접 만나고 한두 번 정도 전화를 한 것 외에 나머지 작업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다.⁵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 생산성에 그다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인터넷이 생산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

으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가 말한 바와 같이 "말만 떠들썩하고 정작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식의 비교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가전제품이 등장한 것은 최소한 수십 년이 지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 인터넷이 등장한 것은 고작 20년 정도에 불과하니 말이다. 일면 옳은 지적이다. 저명한 과학사학자 데이비드 에저튼(David Edgerton)이 『과거의 충격—1900년 이후의 기술과 세계 역사』(*The Shock of the Old: Technology and Global History Since 1900*)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기술은 흔히 개발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야 최대한으로 사용되고, 영향력도 그 때가 가장 커진다. 하지만 즉각적인 영향만을 놓고 보더라도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과연 그렇게 혁명적인 기술인지 나로서는 회의적이다.

인터넷, 전보에게도 지다

1866년에 대서양을 잇는 전보 서비스가 개통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서양을 건너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3주 정도 걸렸다. 뚝단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증기선을 이용하여 속달로 보낸다고 해도 2주는 걸렸다. (8~9일에 간 적도 있지만 이는 세계 기록이다.)

하지만 전신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300단어짜리 편지라면 소식을 전하는 데 7~8분이면 될 정도로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심지어 더 빠른 적도 있다. 가령 1861년 12월 4일자 『뉴욕 타임스』 기사에 따르

면, 7578단어로 이루어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92분 만에 미국 전역으로 전송되었다고 한다. 분당 82단어의 속도로 전해진 셈이니 300단어짜리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채 4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최고 기록이고 평균 속도는 분당 40단어였다. 따라서 300단어짜리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대략 7~8분이 걸렸다고 보아야 한다. 전보의 발명으로 인해 대서양을 건너 소식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2주일에서 7~8분으로 줄었으니 2500배가 넘게 빨라진 셈이다.

반면에 인터넷은 300단어짜리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2초 정도가 걸린다. 팩스로 전송할 때 10초 정도가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겨우 5배 단축시킨 것이다. 물론 길이가 긴 메시지의 경우에는 전송 속도가 더 많이 단축된다. 예를 들어 3만 단어짜리 문서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에는 16분(1000초) 이상 걸리지만,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에는 파 일 업로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도 10초 정도면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전송 속도가 팩스에 비해 100배 정도 빨라진 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전신 서비스가 이룩했던 2500배 단축 기록과 비교해 보라.

물론 인터넷에는 다른 혁명적인 특징도 있다. 사건을 빠른 속도로 보내는 것 같은 일도 인터넷 아니면 못 하는 일이고, 전보와는 달리 우체국 외의 다른 곳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하면 원하는 정보를 다양한 자료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순전히 속도의 혁명이라는 점만 놓고 보자면 인터넷은 그 보잘것없는 (그나마 무선도 아니라 유선) 전보에도 상대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래 가장 최신의 기술이자 가장 눈에 띄는 기술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이미 1944년에 '물리적 거리'가 파괴되고 국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호들갑을 떨게 만든 기술은 다름 아닌 비행기와 라디오였다.

변화를 큰 그림 인에서 이해하기

사람들이 전신 서비스나 세탁기보다 인터넷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라는 말인가?

이런 왜곡된 시각이 단지 개개인의 견해에 그친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귀중한 자원이 잘못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 혁명에 마음이 팔려 이제는 '구닥다리' 제조업은 필요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탈산업화 사회'의 시대가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제조업을 홀대하여 지국 경제를 악화시켰다(Thing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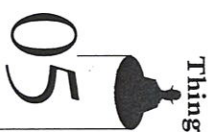
더 걱정스러운 일은 선진국 사람들이 인터넷에 매료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국제 문제화되고,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나 자선단체, 개인들이 개발도상국에 컴퓨터와

인터넷 설비를 갖추라고 많은 돈을 기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정보 격차 해소가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씩 마련해 주고, 시골 마을마다 인터넷 센터를 세워 주는 것이 도움은 될 터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우물을 파 주고, 전기를 넣어 주며,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비록 고리타분해 보일지는 모르나 실제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우물이나 전기, 세탁기 같은 것이 반드시 컴퓨터나 인터넷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많은 기부자들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거둘 수 있는 혜택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과 비교해 가며 면밀하게 평가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그럴싸해 보이는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새로운 것에 폭 빠진 사람들은 최근 통신 및 운송 기술상에서 이루어진 혁명적 변화 덕분에 일본의 비즈니스 구루 오미에 겐이치의 유명한 책 제목 그대로 우리는 이제 '국경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⁶ 그에 따라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최근에 일어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진보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변화에 반대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 역시 국경 없는 세계의 도태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국경을 넘어 흘러들어 오는 자본과 노동, 상품에 대해 반드시 기해야 할 규제마저 일부 철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다(구체적인 예는 Thing 7, 8 참조).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최근의 기술 변화는 100년 전에 있었던 변화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100년 전의 세계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에 비해 통신과 운송 부문에서의 기술은 훨씬 뒤떨어졌으나 오히려 세계화는 월등히 진전된 상태였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는 정부들, 특히 협선 나라의 정부들이 자본, 노동,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에 엄격하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화의 정도(혹은 각국의 개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지 기술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기술 혁명에 사로잡혀 시각이 왜곡될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다.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제 정책을 올바르게 입안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직업 선택 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것에만 사로잡혀 이제는 보편화된 것들을 저평가할 경우 과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 여기서 는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 주고자 일부러 보잘것없는 세탁기와 인터넷을 맞붙여 보았다. 일견 도발적인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술력이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죄악을 예상하면 죄악의 결과가 나온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에덤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판매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직 자기 자신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아울러서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한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타적 내지는 자기희생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경제 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 즉 사람들이 항상 죄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이기심은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본성 중의 하나이지만, 유일한